

대학본부 조직개편 단행

대학본부 조직개편이 이뤄졌다. 이번 개편을 통해 대외협력처와 국제교류원이 '글로벌협력처'로 통합되고, 교학부총장 직속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신설됐다. 그밖에 기존의 센터와 팀 등이 소속을 옮기는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대학본부는 유학생 유치 역량과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고, 학사 행정조직의 효율화를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대외협력처와 국제교류원의 통합으로 신설된 글로벌협력처는 지역사회와 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글로벌 역량을 증대하고자 만들어졌다. 기존 대외협력처가 주관하던 홍보 등의 업무와 지역사회 협력, 국제교류원의 유학생 유치·관리 등 업무를 모두 맡는다. 김지현 글로벌협력처장은 "본교가 세계,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협력처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글로벌협력처는 기존 대외협력처 산하 대외협력팀과 미디어홍보팀을 통합한 '글로벌상생홍보팀', 국제교류원 소속의 ▲국제교류지원팀 ▲국제학생지원센터 ▲언어교육센터와 학생처 소속 사회봉사센터를 개편한 'ESG센터'를 산하 기구로 둔다. ESG센터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투명한 학교 경영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작하고, 지역사회 단체들과 협력하는 업무를 맡는다. ESG센터에 대해 김 처장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고용노동부가 대학생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주관하는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 등의 선정을 위

해 교학부총장 직속 기구로 신설됐다. 학생의 진로 탐색과 경력 개발을 지원하는 등의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장명희 교학부총장은 "지역이나 기업과 긴밀하게 연계해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취업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학생처 산하 진로취업지원팀과 학생진로상담센터를 통합해 구성된 '진로취업지원팀'과 신설된 '지역청년고용팀'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소속으로 운영된다. 조종집(진로취업지원팀) 팀장은 "학생들의 진로 설계 및 취업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산학연구처 소속이었던 현장실습지원센터와 IPP사업단도 교학부총장 직속 기구로 소속이 변경됐다. 취업 지원 관련 업무를 맡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및 산하 팀과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교학부총장 직속으로 재편됐다. 장 교학부총장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관련한 업무를 맡는 부서가 교학부총장 직속 기구로서 연계·협력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학연구처의 산학교육지원팀은 '산학교육지원센터'로 승격됐다. 기존과 같이 산업계와 연계해 공동으로 진행하는 연구 업무를 맡되, 해외현장실습 등 기업과 연계한 교육을 지원하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승격됐다.

산학연구처 산하의 ▲창업지원센터 ▲벤처창업지원센터 ▲중장년기술창업센터는 캠퍼스타운사업단으로 소속이 이동됐다. 캠퍼스타운사업단은 학생의 지역 내 창업을 지원해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도모하는

부서로,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일원화된 창업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창업지원 관련 센터를 모두 캠퍼스타운사업단으로 이관했다.

기획조정처의 전략기획팀과 평가지원팀은 '전략평가관리팀'으로 통합됐다. 전략기획팀의 기획 및 업무 조정에 관한 사무와 평가지원팀의 대내외 평가 실적 관리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면서, 모집단위 정원 조정, 행정부서 정원 관리 등의 기능이 강화됐다.

산학협력단의 산학협력팀과 과제지원팀도 통합을 거쳐 '연구지원팀'으로 재편됐다. 연구지원팀은 외부 연구비에 대한 관리와 산학협력 활동에 대한 연구비 정산 및 지출 관리를 맡는다. 최은석(전략평가관리팀) 팀장은 "산학협력단 내 연구비 정산 등의 기능을 일원화해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재편했다"고 설명했다.

대외협력처의 미디어홍보팀이 맡던 출판 지원 사무는 산학연구처 소속 산학연구기획팀으로 이관됐다. 최 팀장은 "산학연구처의 연구지원 기능과 학술출판 기능을 연계해 우수 학술출판을 확대하고자 함"이라고 전했다.

한편 조직개편 업무를 총괄하는 전략평가관리팀은 본교의 지역사회 및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전환시대에 대응해 행정조직을 효율화하는 것이 이번 개편의 전체적인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팀장은 "본교가 지역 활성화의 핵심 주체로 기능함으로써 위상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황서연 기자 hsy040623@gmail.com

학생자치기구 재선거, 3·4일 진행 예정



▲유세를 진행하는 'F'ERE' 선거운동본부

'2024학년도 학생자치기구 재선거(이하 재선거)'가 4월 3·4일에 실시된다. 이번 재선거는 지난해 11월 진행된 '2024학년도 학생자치기구 총선거'에서 출마한 후보자가 없어 선거가 무산됐던 창의융합대학과 트랙·학과(부) 등이 대상이다. 창의융합대학 선거에는 'F'ERE'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의 김희원(문콘 3) 정회장과 후보와 함현지(문콘 2) 부회장 후보가 입후보했다. 1개 선본만 입후보한 단위는 재직인원 과반의 투표와 투표인원 과반의 표를 얻어야 당선될 수 있다.

각 선본의 유세는 3월 20일에 시작해 4월 2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투표는 양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진행되며, 온·오프라인의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오프라인 투표소는 미래관 앞과 상상관 1층 2곳에 설치된다. 개표는 4월 5일 오후 4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투표자 수 미달로 인해 투표가 연장되

면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를 진행한 후, 7시에 개표가 시작된다.

후보자토론회 및 정책토론회는 3월 28일 미래관 DLC에서 진행됐다. 'F'ERE의 공약 설명 및 참석자와의 질의응답 등이 이뤄졌다. 이날 'F'ERE의 합 후보는 "창의융합대학의 여러 학과 학생들이 소속감을 느끼며 교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래플러스대학은 총선거에 이어 이번 재선거에도 출마한 단위가 없어 선거가 치러지지 않는다. 이에 대해 김동규(사회과학 4)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미래플러스대학 학생들은 재직하며 학교를 다니고 있어 출마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올해 총선거 때 미래플러스대학도 출마자가 나와 학우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결집시킬 수 있는 학생회가 출범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권수연 기자 tndusk03@gmail.com

1차 대의원총회서 2024학년도 상반기 예산안 확정



▲지난 14일 개최된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들이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

'2024학년도 상반기 1차 대의원총회(이하 총회)'가 지난 21일 개최됐다. 총회에는 재직 대의원 13명 전원이 참석했으며,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 예산안 심의가 안건으로 상정됐다. 중운위의 모든 예산안은 재직 대의원 중 과반의 찬성을 받아 통과됐다. 이날 2024학년도 상반기 예산으로 총 39,740,680원이 인준됐다.

총학생회 '한울'은 총 26,830,010원을 승인받았다. 세부항목으로는 ▲새내기 새로 배움터 ▲대동제 ▲대동제 청소 ▲일상 운영비 ▲사업 예비비 등이 있다.

총대의원회 '백연'은 3,094,500원을 인준

받았다. ▲재선거 ▲대의원 총회 ▲대의원 간담회 ▲우수 상임위원 선정 ▲우수 대의원 선정 ▲일상 운영비 ▲사업 예비비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학생복지위원회 'with'의 상반기 예산은 3,618,320원으로 책정됐다. 예산안 세부항목에는 ▲대여품보 보수 ▲간식사업 ▲그린캠퍼스 ▲문화의 날 ▲대동제 ▲일상 운영비 ▲사업 예비비 등이 포함됐다.

동아리연합회 'AXIS'는 총 1,106,620원을 승인받았다. 예산은 ▲24-1 동아리박람회 ▲대동제 ▲일상 운영비 ▲사업 예비비 등에 쓰일 예정이다.

크리에이티브인문예술대학 학생회 'INTRO'의 예산은 총 1,149,870원이다. 세부항목으로는 ▲학우 간 교류 ▲복지사업 개선 ▲행사 사업 ▲문화생활 지원 ▲일상 운영비 ▲사업 예비비 등이 있다.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청춘'이 승인받은 금액은 총 1,635,430원이다. ▲스포츠 경기 단체관람 ▲사회과학대학 체전 ▲모의투자경연대회 ▲중간고사 종료 후 격려 이벤트 ▲대여사업 ▲일상 운영비 ▲사업 예비비 등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된다.

디자인대학 학생회 'FOCUS'의 예산으로 총 977,050원이 승인됐다. 이는 ▲권익사업 ▲작성짜우 행사사업 ▲만우절 행사사업 ▲일상 운영비 ▲사업 예비비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IT공과대학 학생회 '공명'은 총 1,328,880원을 인준 받았다. 세부 항목은 ▲만우절 행사 ▲프린트 사업 ▲작성배 짜우배 ▲E-스포츠 대회 ▲대여사업 ▲일상 운영비 ▲사업 예비비 등이 있다.

김동규(사회과학 4) 총대의장은 "5월에 있을 대의원총회에서 창의융합대학 학생회의 예산안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권수연 기자 tndusk03@gmail.com

삼선제5구역 인근 주민, 소음·진동 피해 대책 촉구

삼선제5구역 인근 주민들이 재개발 공사 진동과 소음 문제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성북구청에 지난 1월 제출했다. 또한 주민들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주택가에 게시하는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성북구청에서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개발 공사로 인한 삼선제5구역 인근 주민들의 피해는 상당한 수준이다. 공사 시 발생하는 진동으로 인해 건물 외벽에 금이 가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중이다. 소음 피해 또한 이어지고 있다. 본지가 공사장 인근 소음을 측정한 결과 약 65~75dB이 나왔다.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기준』 제20조 제3항에 따라 공사장 주변 소음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65dB 이하, 발표소음의 경우 75dB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공사장 소음이 기준을 초과해 성북구청 측에서 2차례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성북구청은 주민들의 이 같은 민원 내용을 시공사인 롯데건설에 전달하고, 민원 관리자를 배치해 불편사항을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북구청 관계자는 "공

사 현장의 소음과 진동 규제 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파악·관리하고 있다"며 "주민과 시공사, 구청 간 대화 창구를 마련해 소통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롯데건설 또한 주민들의 피해 사항을 인지하고 있고, 민원 내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유현상(롯데건설 삼선제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무팀) 대리는 "관계 법령에 따른 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에어방음벽 추가 설치 등을 통해 수시로 소음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동 문제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진동허용기준은 초당 0.3cm이지만 현장에서는 진동을 초당 0.15cm로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소음과 진동을 유발하는 굴착공사, 발파공사는 오는 10월까지 주 5일간 진행되고, 10월 이후부터 2025년 1분기까지 주 1~2회기량 진행된다. 유 대리는 "공사장 주변에 교육 시설이 다수 위치해 사전 교육환경평가를 진행했고 공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평가내용을 이행하고 있다"며 "공사로 인한 불편사항 발생 시 언제든지 롯데건설 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유성 기자 meteor11@hansung.ac.kr

벚꽃보다 먼저 '개화'한 동아리를 만나다

1학기 동아리 박람회 성료

'2024학년도 1학기 동아리 박람회(이하 동아리 박람회)'가 3월 6·7일 양일간, 잔디광장을 비롯한 학내 곳곳에서 개최됐다. 동아리 박람회는 신입생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동아리를 홍보함으로써 동아리 활동 참여를 유도할 목적으로 개최됐다. 행사는 본교 구성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었다.

동아리 부스는 1일차에 오후 12시부터 6시까지 운영됐으나, 2일차에는 우천으로 인해 12시부터 3시경까지만 운영됐다. 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 'AXIS'의 부스를 포함해 ▲공연예술분과 왕산악, 들불, 탈패, 한음, 낙산극회, TRIAX, NOD, brillante, 4호선마이크 ▲종교분과 CCC, UBF, 로사리오, JOY 선교회, IVF ▲학술분과 경제학연구회, H-LEP, 셈들, FLASH, DC&M, ASPIRE, TeamODD, TIME ▲체육분과 HTM, TURTLES, UP, 피닉스, 바팔로, 한검회, 한얼 ▲평면예술분과 P.I.G, 이무기, 영화다숨, 매나니로, 한성타이포 ▲취미봉사분과 유스호스텔, 해랑사리우, 별조각, 낭동이, 그리고 준동아리로 참여한 '멋쟁이사자처럼'의 부스를 체험할 수 있었다.

'들불'은 베이스, 일렉트릭 기타와 같은 악기를 체험해 보는 행사를 기획했다. 들불 부원이 부스를 방문한 학생에게 악기를 다루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기도 했다. 김경민(인문 3) 들불 회장은 "악기뿐 아니라 앰프 등의 장비도 구비하기가 어려워 악기를 연주해 볼 기회가 많지 않기에, 체험을 통해 우리 동아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며 "악기는 배우기 어렵다는 거부감을 줄이는 데 기여한 것 같다"고 밝혔다.

기독교 동아리 'IVF'는 '새로운 학기, 새로운 소망'이라는 이름의 부스를 선보였다. 부스를 방문한 학생들이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갖게 된 걱정이나 소망을 포스트잇에 적어 붙이면, IVF 부원들이 대신 기도해주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엄성호(사회과학 3)



▲학생들이 '4호선마이크' 부스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

IVF 회장은 "새 학기의 새로운 소망을 떠올리며 설렘을 느끼는 학생들도 있었고, 소망과 걱정을 대신 기도함에 감사함을 느끼는 학생들이 많았다"며 "우리 동아리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술회했다.

'세계시민의식'에 대해 배우고 토론하는 동아리 'ASPIRE'는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천연 수세미와 입욕제를 제작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박예진(사회과학 2) ASPIRE 부지부장은 "세계시민의식에 관한 동아리임을 보여줄 수 있는 체험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준비했다"며 "많은 신입생이 즐겁게 참여해 보람을 느꼈다"고 전했다.

농구 동아리 'UP'는 농구 규칙과 용어, 유명한 농구 선수와 팀 등을 맞히는 퀴즈 이벤트를 진행하고, 정답을 맞힌 참여자에게 소정의 간식을 지급하기도 했다. 장혁준(사회과학 3) UP 회장은 "농구를 잘 모르는 참

여자들은 '이런 용어가 있었는지 몰랐다'는 등의 흥미로운 반응을 보였다"며 "신입생들이 동아리 활동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도움을 준 행사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타이포그래피 등을 연구하는 동아리 '한성타이포'는 형태를 변형시킨 여러 상류 로고들 사이에서 변형되지 않은 로고를 찾아보는 게임을 기획했다. 김가은(ICT 2) 한성타이포 회장은 "게임을 통해 타이포그래피가 무엇인지 알아가는 참여자도 있었다"며 "디자인과 관련된 전문적인 동아리이다 보니 관련 전공의 학생들만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행사를 통해 여러 전공의 학생들이 관심을 갖는 것 같아 좋다고 생각하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천체 관측 동아리 '별조각'은 행성이나 별자리 모양의 타투 스티커를 판매하고, 천체에 관한 퀴즈 등을 선보였다. 최윤지(사회과학 3) 별조각 회장은 "학생들이 즐겨하는



▲학생이 '한검회' 부스에서 검도를 체험한다.

활동에서 '천체'를 접목시켜, 천체 관측 동아리로서 정체성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관련한 준동아리 '멋쟁이사자처럼'은 부원들이 직접 개발한 홈페이지를 선보이며, 어떤 활동을 진행하는 동아리인지 알리는 데 주력했다. 김지은(사회과학 2) 멋쟁이사자처럼 회장은 "동아리 가입 시 IT 창업과 관련한 역량을 기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각 동아리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동아리 박람회는 의미 있는 기회였다"고 전했다. 준동아리임에도 동아리 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임정아(사회과학 3) 동연회장은 "준동아리도 정동아리와 마찬가지로 동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고 있다"며 "멋쟁이사자처럼은 확실한 활동 방향성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이번 동아리 박람회에 참가해 학생들에게 홍보를 진행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동아리 박람회를 주관한 동연 또한 부스를 운영해,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왔다. 동연 부스에서는 참여 학생들이 각각 다른 분과에 소속된 동아리의 부스를 체험한 이후 동아리 박람회 팸플릿에 스티커를 붙여 오면 여러 혜택을 제공했다. 3개를 붙여 오면 비교과 포인트 10pt를 지급했다. 6개를 붙여 오면 동연이 준비한 '영수증 사진기'를 이용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추천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해

당 추천 이벤트를 통해 ▲프리미엄 대용량 디퓨저+팁블러(2명) ▲아로무드 모던 감성수정구슬 무드등+팁블러(3명) ▲카밀 핸드크림 기프트 세트+상상부기 우산(6명) 등의 상품을 지급했다. 또한 직접 제작한 심리 테스트에 참여하면 참여자가 어떤 분과의 동아리에 가입하는 것이 적합한지 제시하는 이벤트도 진행했다.

이번 동아리 박람회는 많은 학생들이 동아리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기회로 작용했다. 부스를 체험한 흥기서(인문 2) 학생은 "학술분과 소속의 동아리 위주로 체험해 봤는데, 부원들이 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동아리가 많은 것 같다"고 밝혔다. 조서영(문헌 1) 학생 또한 "많은 동아리가 있음에도 전부 흥미로워 보였다"며 "동아리의 종류와 활동 내용 등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아갈 수 있어서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동아리 박람회를 주관한 임 회장은 "이번 동아리 박람회의 주제는 '개화'로, 동아리 부스 체험을 통해 새로운 나를 찾는 과정을 뜻이 되는 모습에 빚대어 설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개강 이후 바로 진행되는 큰 규모의 행사라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으며, 동아리 회장단도 열심히 부스 운영을 준비해서 성공적으로 진행된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유성 기자 meteor11@hansung.ac.kr
황서연 기자 hsy040623@gmail.com
권수연 기자 tndusk03@gmail.com



▲버스킹 존에서 무대를 선보이는 '들불'



▲모의투자 체험을 진행한 'FLASH' 부스



▲학생들이 'IVF' 부스를 체험하고 있다.

2024년 3월 4일 ~ 4월 26일

ROTC

후보생을 모집합니다

※인터넷 지원서 접수 시, 고급 생활용품 세트 및 학군단 기념품 증정※

문의 : 02-760-4178 / 모집요강 확인 및 접수 >>

리더십 함양

경제적 혜택

인적 네트워크

자기성장

전사적지탐방

한성만의 혜택

‘실무 경험’ 미끼에 이끌린 대학생

학점 인정받는 현장실습학기제 실습비 미지급 등 문제 발생 실습학생에 노동자 지위 부여해야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장실습학기제란 대학생이 현장실습기관에서 실무교육이나 실습 등을 진행하면 학점으로 인정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현장실습학기제는 직무 관련 교육·훈련이 주 목적이기에, 기업에서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대학생 인력을 직무 관련 교육 없이 업무상 필요에 맞게 운용할 수 없다.

현장실습학기제는 그 특성에 따라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나뉜다.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교육부고시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에 명시된 기준에 의거해 운영되는 현장실습학기제다. 해당 규정에서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실습기간 ▲휴일/휴게시간 ▲근로계약 체결 ▲실습지원비 지급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1~4개월의 기간 동안 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1주 기준 1일 이상의 휴일과 1일 기준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보장된다.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중 발생하는 노동 문제 등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참여 학생은 산업체에 근무하는 실무자와 마찬가지로 봉급 개념의 실습지원비를 수령한다. 실습지원비는 실습일, 실습 시간에 따라 계산해 책정되며, 최저임금의 75% 이상을 지급받도록 규정 중이다.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운영기준이 정해진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다르게 대학별로 자유롭게 운영하는 제도다.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실습기간은 대학교와 실습기관이 상의해 정한다. 휴일과 휴게시간 또한 학생과 실습기관 간의 협의에 의해 정해지며, 근로계약 체결 가능 여부에 대한 법령은 부재하다. 실습지원비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마찬가지로 책정하지만 일부 조건에 한해 미지급 형태로 운영이 가능하다. 미지급 형태로 운영하기 위한 조건은 ▲학생의 전공 교과체계와 실습의 관련성이 요구되는 경우 ▲현장실습학기제를 학교 교육과정 및 수업의 일환으로 운영 ▲운영 전 구체적인 학습사항 및 일정 확정 ▲학생의 활동으로 해당 실습기관에 실질적, 즉각적 유익 없음 ▲실습기관 현장교육담당자의 지속된 지도 아래 직무 체험 형태를 주된 과정으로 참여 ▲실습기관과 학교, 학생 상호 간 사전 동의 하에 미지급 ▲주 15시간 미만으로 운영 등이 있다.

산업체가 참여 학생의 실습지원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참여 학생 몰래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에서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바뀌어 운영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2022년 참여 학생이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협약서’에 서명했지만 실제 지급된 실습지원비가 턱없이 부족해 알아보니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됐던 사례가 있었다. 전문가들은 기업이 자율 현장실습학기

표준·자율 현장실습학기제 비교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실습기간	1~4개월	학교, 실습기관 간 협의
실습지원비 지급기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기준』 제22조에 규정	규정돼 있지만 일부 조건에 한해 미지급 운영 가능
휴일/휴게시간	1주 기준 1일 이상 휴일 보장 1일 기준 1시간 이상 휴게시간	학생, 실습기관 간 협의해 실시
근로계약 체결	학생보호 조치 목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관련 법령 조항 부재

제를 통해 적은 돈으로 대학생 인력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학주(노무사 이학주 사무소) 노무사는 “자율형 현장실습학기제는 최저임금의 75%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인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아끼기 위한 편법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현장실습학기제의 또 다른 문제로 직무 또는 전공과 연관성이 적은 보조 업무를 시키는 경우가 발생하는 점이 꼽힌다.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9조에서 실습기간을 1~4개월로 명시하고 있다. 기업이 판단하기에 실습기간이 짧아 실무를 가르치기보다는 단순 업무를 지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결정해 학생들에게 단순 업무를 지시한다. 실제로 기계공학을 전공한 학생이 현장실습학기제 실습기관에 출근해 전선을 케이בל타이로 묶는 단순 작업을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계속한 사례도 있었다. 기업의 단순 업무 지시는 이뿐만이 아니다. 케이בל을 은박지로 감싸 두루마기 형태로 말거나 전선 피복을 벗겨 전선을 잘라 커넥터에 연결하고 열풍기로 피복을 팽창시키는 등 기계공학 전공과 무관한 수작업도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직원의 강압적인 태도도 동반됐으며, 수작업이 진행될 동안 직무교육은 실시되지 않았다. 이에 더해 직원이 참여 학생을 불러 모아 단순 업무에 불성실하게 참여하면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는 위협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기업이 참여 학생들을 아르바이트생 등 비숙련 노동자의 대체 인력으로 여기는 것 또한 문제점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지난 2022년에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했던 A 학생은 “입사한 날 나와 똑같은 업무를 하는 사람이 장기 아르바이트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봤다”며 “학점을 제공하는 현장실습학기제는 전공 관련성이 요구되는데도, 기업 입장에서는 아르바이트 인력을 선발해 활용하는 것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로 여기는 것 같다”고 술회했다.

현장실습학기제에 대한 점검 또한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19조

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장실습의 운영 실태 등에 관해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점검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직업계고등학교의 경우 전담 노무사를 배치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이 이뤄지기도 하지만 대학교는 관련 조치가 시행되지 않는다. 실제로 2022년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한 대학생이 산업체에서 일하다 기계에 몸이 끼여 사망한 사고도 발생한 바 있다. A 학생은 “학생의 민원이 제기돼도 문제가 발생해야만 조사를 실시하는 태만에 가까운 교육부의 태도가 사고 발생의 원인이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참여 학생에게 피해를 입힌 기업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 또한 부재한 상황이다. 현장실습학기제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기준을 정의하고 있지만, 그 기준을 어겨도 기업을 처벌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참여 학생들은 실습 현장에서 부당한 대우에 노출되고 있다. 이 노무사는 “현장실습학기제를 통해 학점을 인정받는 등 교육과정을 끝까지 이수해 이른바 ‘스펙’을 쌓으려는 학생이 많기 때문에 회사의 부당 대우를 수용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이 법적 노동자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도 또 다른 문제로 제기된다. 현장실습학기제가 실무를 경험하고 학점을 받는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노동자와 동일한 환경에서 근무한다. 그러나 학생 신분이라는 이유로 노동 관련 법률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A 학생은 “현행 현장실습학기제는 학점을 준다는 이유로 노동자가 아닌 학생으로 간주해 학생들은 노동 관련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이 노무사는 “현장실습학기제 규정상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 보니 사고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를 폐지하지는 의견도 존재한다. 기업에서 지급하는 실습지원비의 금액을 축소하기

위해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에서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바뀌어 운영하는 편법을 자행하는 등 현행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하에서는 참여 학생을 기업의 부당대우로부터 보호할 수 없기 때문이다. A 학생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가 영세한 중소기업이 받는 급진적 손실을 완화했다고 하더라도 단순 인력 대체를 막지는 못했다”며 “자율 현장실습학기제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할 수 없는 기업들을 위한 유예제도였다면 이제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를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또한 전문가들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업무를 하기 위해서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말한다. 4개월가량의 기간은 실무를 익히는 데 짧은 이유에서다. 참여 기간을 늘리고 기업의 이익을 위한 단순 노동이 아닌 학생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활동을 지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장실습학기제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지정해 분명한 목적으로 교육과정을 기획해야 한다고도 조언한다. 양성민(부산노동권익센터 노동안전문) 과장은 “현장실습학기제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고, 현장실습학기제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 다룰 수 있는 기관과 부서를 지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현장실습학기제의 업무 환경을 면밀히 조사하고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필요성도 강조된다. 참여 학생이 불이익을 입은 후 개별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 선제적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 노무사는 “큰 사고가 벌어진 후에야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이 바뀔까 봐 걱정”이라며 “정부나 교육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이 기업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기업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을 마련할 필요성도 대두된다.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운영 기준 미준수 기업에 제재를 가하는 등의 조치가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대학생 대상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운영 기준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에 대한 방안이 부재하기에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노무사는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는 참여 학생을 보호하는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최소한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에게 적용되는 보호 방안 수준이라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결국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에게 노동자로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노동자로서 지위를 보장받아야 업무 중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발생했을 때 그에 맞는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A 학생은 “현장실습학기제는 업무에 참여하면서 직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실무를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학생들도 노동 관련 법률로 보호받는 노동자로 간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성 기자 meteor11@hansung.ac.kr

한성대학교 대학원
2025학년도 한성대학교 대학원 학석사연계과정 모집
내일로 한 걸음 더 내딛는다

성장이 더디게 느껴질 때
노력만으로 부족함을 느낄 때
한성대 대학원이 곁에 있습니다.
당신의 힘찬 도약을 함께합니다.

일반대학원(주간)				지원자격			
대학원	학위구분	모집계열	모집학과	모집전공	선발트랙 및 운영방식	지원 자격	대학원 입학 전 일정
일반 대학원	석사	인문계	한국어교육학과	한국어학, 한국어교육	학부조기졸업트랙 7+3 학부 1학기, 대학원 1학기 단축	• 지원(4)까지 전학년 평균평점 3.3 이상 • 학부 5학기 재학생 (7학기내 학부 졸업요건 충족) • 학과(전공)별 추가 자격 요건 충족	• 2024년 4월중: 지원 • 2024년 5-6월중: 합격자발표(8번부여) • 2024-2학기/2025-1학기: 학부 소속으로 대학원 과목 6학점 이상 이수, 연구활동 계획서 7학기(와 8학기) 각 1회 제출 • 2025년 8월중: 대학원 등록 • 2025-2학기: 대학원 입학
			영어영문학과	영어 어휘/문법			
			문헌정보학과	문헌정보학, 기록관리학			
		사회계	문화콘텐츠학과	문화콘텐츠, 문학문화			
			무역학과	국제경영, 국제사무, 국제경제			
			경영학과	인사조직, 재무관리, 서비스운영관리, 마케팅, 회계학, 경영정보			
	공학계	행정학과	행정학, 정책학				
		경제학과	경제학, 부동산경제학, 지급결제·신금융				
		국제이주협력학과	국제이주협력				
	예·체능계	산업경영공학과	산업경영공학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공학				
		기계시스템공학과	산업위생공학				
학과간 협동과정	뉴미디어광고	뉴미디어광고	뉴미디어광고	뉴미디어광고	학부조기졸업트랙 8+3 대학원 1학기 단축	• 지원(4)까지 전학년 평균평점 3.0 이상 • 학부 6학기 재학생 (8학기내 학부 졸업요건 충족) • 학과(전공)별 추가 자격 요건 충족	• 2024년 4월중: 지원 • 2024년 5-6월중: 합격자발표(8번부여) • 2024-2학기/2025-1학기: 학부 소속으로 대학원 과목 6학점 이상 이수, 연구활동 계획서 7학기(와 8학기) 각 1회 제출 • 2025년 8월중: 대학원 등록 • 2025-2학기: 대학원 입학

※ 학부 편입생 및 외국인유학생 지원불가함
※ 학사지원팀 협조를 통해 학사졸업요건 충족 여부 확인 후 대학원 입학 가능 여부 확인함
※ 학사졸업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대학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학석사연계과정 자격사실됨
※ 조기트랙(7학기내 학사과정을 졸업) 자격사실됨 학사졸업을 위해 8학기 이상 등록해야 함

|지원방법 및 발표|

- 모 집 공 고 : 대학홈페이지(<https://www.hansung.ac.kr/hansung/8385/subview.do>) → 한성소식 → 한성공지 → 공지사항
- 모 집 기 간 : 2024년 4월 8일(월) ~ 4월 19일(금)
- 지 원 방 법 : 지원자격을 고려하여 선발트랙 중 1개 선택 / 학석사연계과정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 모집기간 내 소속 학부(과)/전공/트랙 사무실에 학석사연계과정신청서(1부) 및 학부성적증명서(1부) 제출
- 합 격 자 발 표 : 2024년 5월 중 학석사연계과정선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발표 예정 [대학홈페이지(<https://www.hansung.ac.kr/hansung/8385/subview.do>) → 한성소식 → 한성공지 → 공지사항] 참고
- 전 화 문 의 : 02-760-4271(대학원교학팀)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학홈페이지(<https://www.hansung.ac.kr/hansung/8385/subview.do>)]-한성소식-한성공지-공지사항 참고바랍니다.

한성대학교 대학원
(02876)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한성대학교 대학원 교학팀(상상관 100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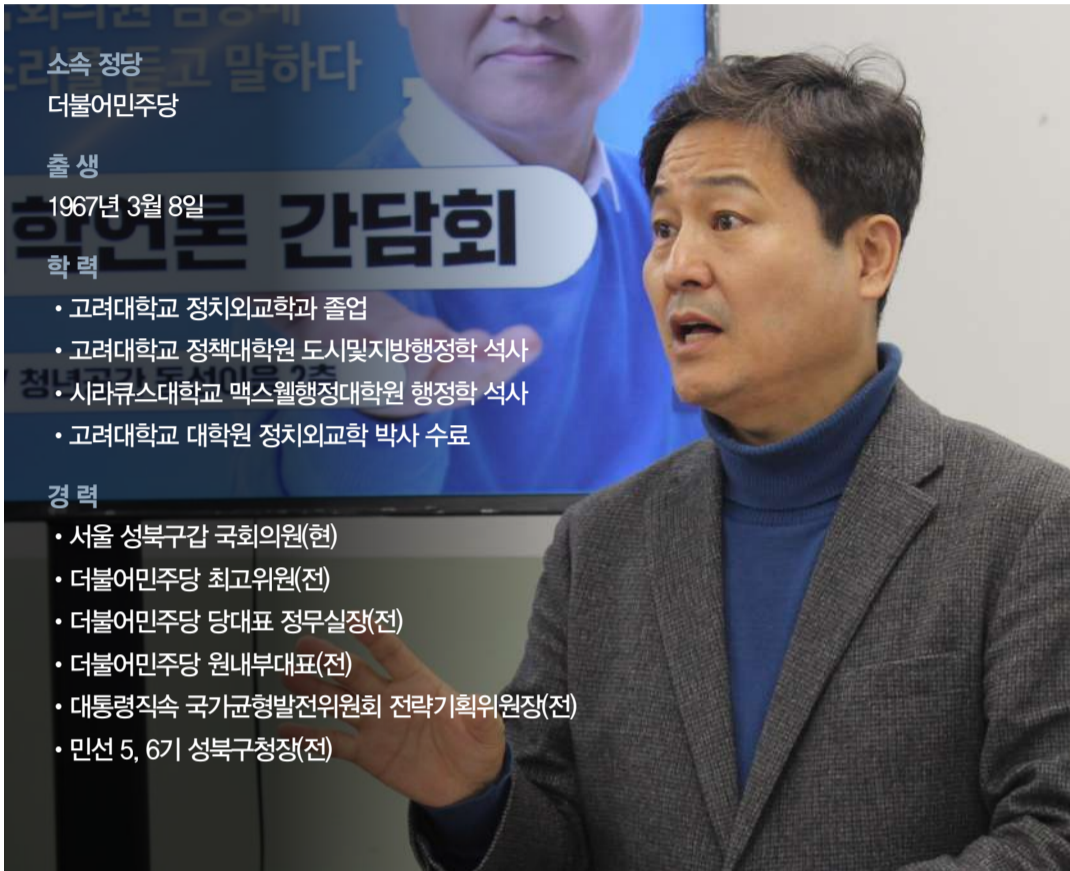
성북과 4년을 함께할 후보자를 만나다

〈편집자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이하 총선)를 앞두고 각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정치권에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고자 다양한 공약을 내세우는 가운데, 청년층과 대학생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공약도 눈에 띈다. 취업, 주거, 결혼 등 청년이 직면한 여러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비롯해, 학령인구 감소라는 위기에 놓인 대학의 미래를 위한 대책들도 제시되고 있다. 또한 청년의 활발한 정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거론된다.

총선을 맞이해 본지를 포함한 서울 성북구갑 지역 소재 4개 대학 학보사(▲국민대신문 ▲서경대신문 ▲성신학보)가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후보와 국민의힘 이종철 후보를 각각 만나, 청년층과 대학생들을 위한 정책에 대해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두 후보가 공통적으로 강조한 바는 '청년의 정치 참여 확대'였다. 이를 위해서 정치권에서도 청년의 정치 참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성 기자 meteor11@hansung.ac.kr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후보

“대학·지역 간 협력을 돕겠습니다”

김 후보는 지금 청년세대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시대 전환'이라고 정의했다.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에너지 위기 혹은 제조업 중심의 자본주의 질서 재편 등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청년층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총력을 발휘해야 함에도, 청년 정책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김 후보는 “지금 청년들이 마주한 위기는 수십 년 전 청년세대가 마주했던 위기보다 훨씬 더 크고 근본적”이라고 전했다. 이어 “능력주의가 일반화되고 부와 계층의 대물림이 반복되고 있다.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하는 것도 청년의 문제와 직결돼 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청년층이 겪는 구체적인 어려움으로는 일자리와 생활 공간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고, 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청년이 더욱 오래 머무를 수 있는 성북구를 만들자고 한다. 이를 위해 '도전숙'과 '캠퍼스타운' 등의 사업을 이어감과 동시에 '안심로드 조성'과 같은 새로운 정책도 선보일 계획이다. 도전숙은 성북구 관내에서 장업을 준비하는 청년 등에게 주거공간 및 사무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성북구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사업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주택을 공급하고 자치구에서 대상 기업을 선정해 사후 관리를 맡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캠퍼스타운 사업은 대학과 지역사회 간의 연계를 통해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안심로드는 1인 가구 비율이 많은 고려대학교와 성신여자대학교 부근에 CCTV나 야간 조명 등 안전장치를 확충하는 공약이다. 김 후보는 “성북구는 청년 1인 가구 거주 비율이 높았으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 등을 통해 청년들이 장기적으로 머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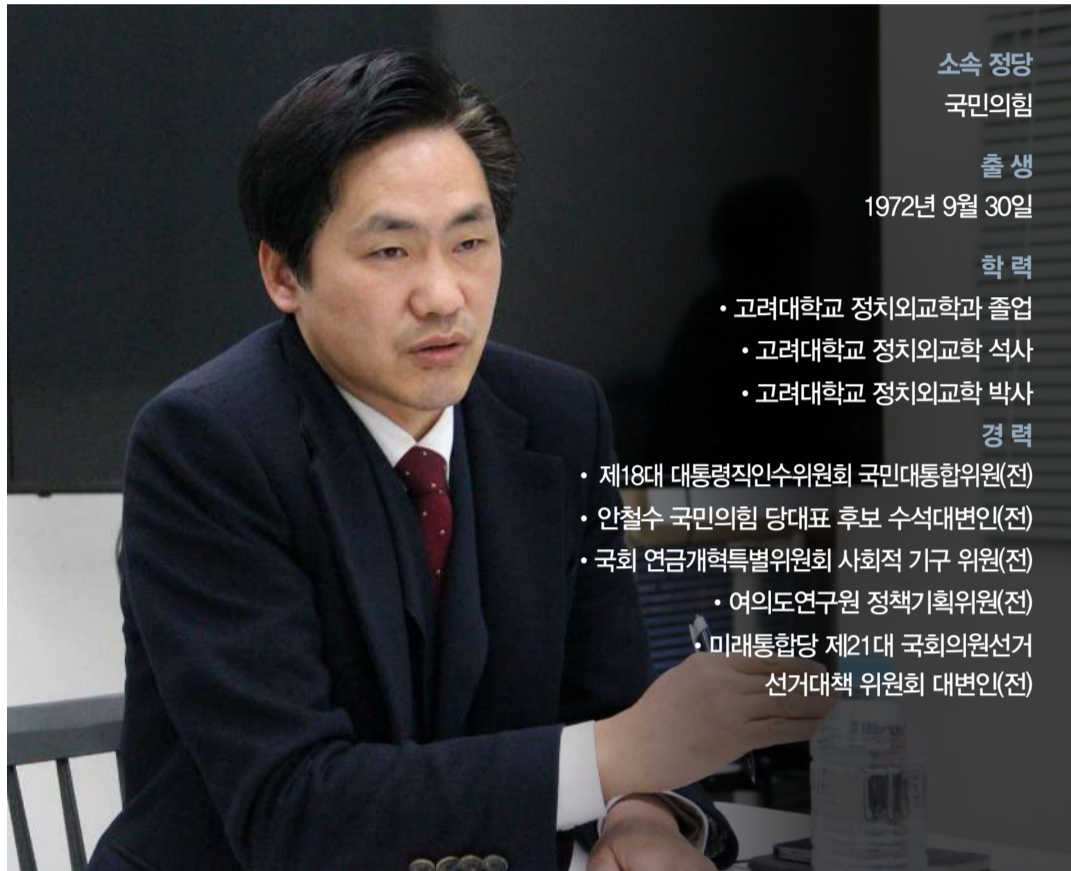
청년의 주거 공간과 주거비 부담 문제에 대한 방안으로 공공주택 공급과 유류 부지 활용 등의 정책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폐교 공간과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부 공간 등에 공공주택과 공공기숙사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추가로 기숙사에 입주하지 못한 학생에게 주거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 또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진행될 때 대학이 주변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 후보는 치솟는 물가로 인한 청년층의 식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천원의 아침밥' 외 다른 사업도 구상하고 있다. 현재 성북구 내 대학 모두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식비 부담에 관한 문제는 획일적인 제도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에 새로운 정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앞으로도 꾸준히 진행할 것”이면서도 “기후동행카드와 유사한 형태로 청년들의 식생활과 교통 생활을 지원하는 패키지를 구상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편 성북구 관내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대학과 지역사회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학과 지방정부의 연계 협력 전략이 향후 중요한 대학의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현재 시행 중인 캠퍼스타운 사업과 같이 청년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김 후보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등 성북구의 뛰어난 연구 역량과 인적 인프라를 활용한 전략이 필요하다”며 “현재는 캠퍼스타운 사업을 더 규모화하고 체계화하는 것이 현안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청년의 정치 참여 활성화 방안에도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청년층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청년 정치 활성화를 위해 김 후보는 성북구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청년들이 다양한 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가는 '청년정책네트워크'를 시행해 청년 스스로 정책을 집행하고 평가하는 체계를 운영한 바 있다. 또한 청년 정치인의 정치 경력을 늘리고자 정당 가입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해 통과시키기도 했다. 그는 “현재 다수 대학의 학칙에서 학생들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고 있어 놀랐다”며 “청년들이 청년의 문제에 대해 발언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청년 정치가 추후 안정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청년 당사자의 정치 참여가 확대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청년 스스로 나서 청년 정치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에 더해 정치권에서도 당원 가입 연령을 하향한 만큼 청년 정치인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김 후보는 “청소년과 청년이 민주주의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종철 후보

“대학 간 장점을 연계하겠습니다”

이 후보는 심화된 취업 경쟁과 주거·결혼·출산·육아 등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 여건을 마련하기 어려운 점을 현재 청년세대가 겪는 문제로 꼽았다. 안정된 경제적 기반 아래에서 가정과 생활을 꾸리는 것이 현재 청년층에게는 선배 세대에 비해 짐으로 다가온다는 설명이다. 이 후보는 “취업과 주거, 결혼과 출산 등이 과거에 비해 청년층에게 가중된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실질적인 어려움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후보는 '노동 개혁'으로 일자리 탄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러 대기업에서 적용되고 있는 호봉제를 폐지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이다. 그는 “근로시간 총량제를 시행해 수행하는 업무량도 조정하면서 일자리 탄력성을 확보하는 정책을 생각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대학 졸업 후 취업 준비 기간에 생기는 공백을 줄이기 위해 '청년 자립지원센터' 등을 운영해 대학교에서도 취업을 돕는 방안을 생각했다”고 밝혔다.

청년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킬 정책으로는 현재 서울특별시에서 실시하는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성북구 차원에서 시행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 주거 환경 마련을 위해 시행되는 주거복지사업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9세의 청년이 대상이며, 수혜자로 선정되면 월 20만 원의 주거비를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받는다. 이 후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후 한시적으로 생겨난 청년월세지원 사업이 상시화될 필요가 있다”며 “성북구 차원에서도 관련 예산을 확보해 지역 대학들의 주거비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층의 식비 부담 완화를 위한 공약으로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지속과 더불어, 지역 대학에게 지역 상권에서만 사용 가능한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고민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성북구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바우처 형태의 지원금을 통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성북구 관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대학 간의 협의체인 '성북 클러스터'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대학 간의 소통을 통해

지역과 대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현재 본교를 비롯해 ▲고려대학교 ▲국민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서경대학교 등이 참여 중이지만 이 후보는 성북 클러스터를 더욱 활성화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성북구 관내 5개 대학과 협의를 운영하고 있지만 새로운 아이디어 도출을 위해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한 'SU(Seongbuk University) 지원센터'를 통해 각 대학이 특화된 부분을 서로 연계하는 등 물적·인적 지원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SU 지원센터는 청년들에게 사무실을 임대해 청년 기업가를 육성하는 제도다. SU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대학 졸업 후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사무실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청년 기업이 육성이 가능하다. 그는 “성북구갑 지역이 대학교가 제일 많은 지역구인 만큼 다른 지역에도 모범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 정치 활성화를 위해 이 후보는 정치권이 청년들에게 개방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청년이 주체가 되고 정치에 대한 관심을 키워 참여를 유도하는 청년정치학교가 안착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청년정치학교에서 배출된 청년 대변인에게 논쟁 작성 연습을 도와 청년 대변인을 양성하고 도운 바 있다. 이 후보는 “청년들이 패기 있게 도전하고 정치권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해왔다”며 “청년 정치 활성화를 위한 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정치권에 몸담은 이후에도 수용적이면서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입장을 취했다”고 말했다.

청년 정치의 미래에 대해서는 김 후보와 마찬가지로 청년의 정치 참여 확대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청년 스스로 자기 세대의 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당이 '청년국'을 개설해 청년 정치인만이 할 수 있는 임무를 부여하고 당 지도부가 바뀌어도 안정적으로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 18세까지 피선거권을 보장하는 만큼 청년 정치인이 출마할 경우 공천 과정에서 가산점을 주거나 학생 신분으로 출마해도 학교 차원에서 수업을 보장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도 조언했다. 이 후보는 “추상적인 정책 보다는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음성과 문자를 연결하다 : 음성 인식 기술

AI와 함께 발전하는 음성 인식 기술을 만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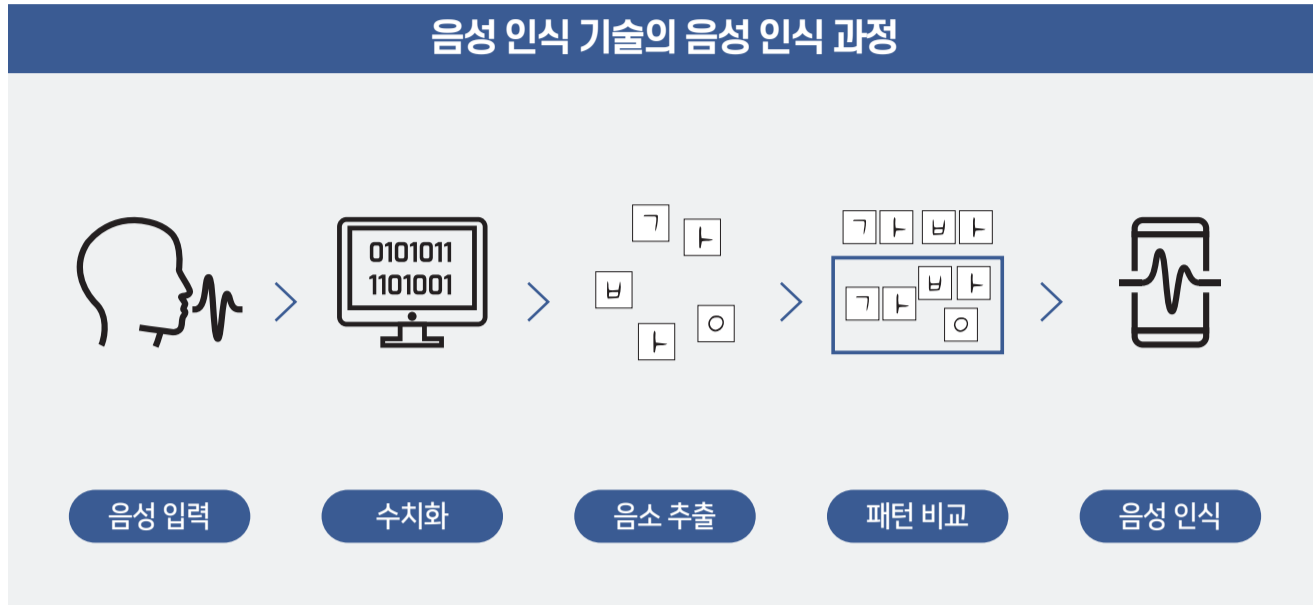
음성은 인간이 사용하는 가장 보편적인 의사소통 방식이다. 하지만 음성만으로 소통이 어려운 상황을 위해, 인간은 음성을 문자로 나타내는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해 왔다. 그러한 노력은 현대에 이르러 '음성 인식 기술'을 만들어 냈다. 음성 인식 기술의 사전적 정의는 '인간의 음성을 인식해 그 내용을 문자의 형태로 변환하는 기술'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음성 인식 기술에는 어떤 원리가 숨어 있을까?

음성 인식 기술은 크게 ▲단어 음성 인식 ▲연속 음성 인식 ▲화자 인식 시스템으로 분류된다. 단어 음성 인식 시스템은 명사만을 인식하는 시스템이다. 연속 음성 인식 시스템은 명사뿐만 아니라 목적어, 동사 등의 음성을 인식해 문자 형태로 전환한다. 음성이 무엇인지 인식하는 것이 목적인 두 시스템과 달리, 화자 인식 시스템은 음성을 발성한 인물을 판정하거나 식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하진(서울시립대학교 컴퓨터과학부) 교수는 "단어 음성 인식 시스템은 단어 단위로 끊어서 인식하는 시스템이고, 연속 음성 인식 시스템은 우리가 평소 말하는 것처럼 문장 단위로 음성을 인식한다"며 "화자 음성 인식 시스템은 '누가 어떤 내용을 말했다는 것'보다는 '말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아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음성 인식 기술의 원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소리를 내고 듣는 원리부터 이해해야 한다. 모든 소리는 물체의 진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파동의 형태를 띠며, 이는 음성도 마찬가지다. 폐에서 나온 공기가 성대를 때리면서 진동을 발생시키고, 이 진동이 성대의 상단 부분인 '성도'와 입을 통과해 외부로 퍼져나가 파동의 형태로 나타난다. 파동의 형태를 띤 음성은 우리 귀로 들어가 고막을 진동시키고, 이 진동은 달팽이관까지 이어져 청각세포를 자극시킨다. 이후 청각세포의 활동이 신경을 거쳐 뇌로 전달되면 음성으로 인식한다.

이처럼 사람이 진동으로 소리를 전달받듯, 컴퓨터도 진동으로 음성을 전달받는다. 사람이 컴퓨터와 연결된 마이크에 소리를 내면 마이크의 진동판이 고막처럼 진동한다. 마이크는 진동으로 생기는 파형을 인식하고 이를 컴퓨터로 전달한다.

마이크를 통해 전달된 소리는 음성 인식에 필요하지 않은 소리도 포함하고 있기에,



필요한 음성만을 추출해야 한다. 일상생활에서의 모든 소리는 인식하고자 하는 음성뿐만 아니라 잡음, 잔향 등 소음을 포함한다. 따라서 정확한 음성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소음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인식하고자 하는 음성을 식별해 어떤 주파수* 대역을 갖는지 알아낸 후, 불필요한 소리의 주파수 대역을 제거한다. 유 교수는 "소음을 제거할 때는 소음이 있는 주파수 대역을 제거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고 밝혔다.

소음이 제거된 음성은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수치화된다. 음성은 물리적인 진동기에 이를 컴퓨터가 처리하기 위해서는 숫자로 변환시켜야 한다. 수치화하는 과정에서는 'Analog-to-Digital Converter(이하 ADC)' 회로를 사용한다. ADC는 음성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신호를 0과 1로 구성된 디지털 신호로 변환시켜, 컴퓨터가 이를 인식할 수 있게 만드는 회로다. 김준태(SK텔레콤 음성인식팀) 연구원은 "어떤 물리적인 신호를 분석할 때 그 신호의 값이 있어야 정량적인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며 "자연의 물리신호를 수치화하는 데 ADC 회로를 활용한다"고 전했다.

수치화된 음성에서 '음소'를 추출하는 과정 또한 거쳐야 한다. 음소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최소의 언어 단위다. 예를 들어 '가방'이라는 단어를 음소 단위로 쪼개면 'ㄱ', 'ㅏ', 'ㅂ', 'ㅓ', 'ㅇ'이 된다. 음소를 추출하는 과정은 수치화된 음성이 어떤 음소들

로 구성돼 있는지 파악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때는 수치화된 음성과 '특징 벡터'를 비교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특징 벡터란 모든 음소의 정보를 수치화한 값의 모음이다. 입력한 음성에 대한 특징 벡터값이 컴퓨터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음소를 추출하거나 음소를 아예 추출할 수 없기에 특징 벡터는 음소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여겨진다. 송정영(배재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컴퓨터가 얼마나 많은 음성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가에 따라 정확성이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에는 음소를 효과적으로 추출하기 위해 '딥러닝'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딥러닝이란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등의 복잡한 작업 과정을 학습시킨 후, 스스로 수행하도록 하는 인공지능(이하 AI)의 한 방식이다. 기존에는 음소를 추출하기 위해 각각의 음소를 파악해야 하는 구간마다 특징 벡터를 하나씩 맞춰가며 수작업으로 비교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AI가 발달한 최근에는 컴퓨터가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 입력된 음성을 대량의 특징 벡터와 스스로 비교함으로써, 단어나 문장을 한 번에 추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송 교수는 "AI를 사용하기 이전에는 음성을 각각 수작업으로 처리했지만, 현재는 AI 학습을 통해 한꺼번에 처리하는 기술을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컴퓨터는 추출된 음소를 조합하고, '패턴 비교' 과정을 통해 조합된 음소로 완성된 단

어나 문장이 유의미하도록 만든다. 패턴 비교란 두 가지 이상의 음성 정보를 서로 비교해 전체 문맥과 맞는 단어 및 문장을 연결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는 '언어 모델'이 쓰인다. 언어 모델은 자주 사용하는 단어나 문장을 학습시켜, 자연스럽게 적절한 문장을 만들어내는 모델이다. 컴퓨터는 추출된 음소를 조합해 단어 혹은 문장을 완성하고, 컴퓨터에 내재된 언어 모델과 패턴 비교 과정을 거쳐 문맥에 맞는 구문을 만든다. 예를 들어, 컴퓨터가 음소를 조합하는 과정에서 '가바'와 '가방'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가정해 보자. 전체 문장이 "OO이 예쁘다"라면 패턴 비교를 통해 컴퓨터는 '가바'보다 '가방'이 문맥상 더 적절하다고 판단해 '가방'이라는 언어 모델을 통과시켜 문장을 완성한다. 컴퓨터 내 존재하는 언어 모델의 학습량이 적다면 컴퓨터가 유사한 단어나 문장을 찾을 수 없어, 음성을 낸 사람이 의도치 않은 문자 형태로 음성이 전환된다. 이에 언어 모델 학습은 음성 인식 기술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음성 인식 기술은 최종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된 단어나 문장을 문자 형태로 추출한다. 패턴 비교 과정을 통해 추출된 단어나 문장은 컴퓨터가 처리했기에 컴퓨터만이 인식할 수 있는 수치로 나타나 있다. 이를 사람이 알아볼 수 있게 문자 형태로 전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는 물리적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전환한 ADC 회로를 역방향으로 처리해, 디지털 신호를 물리적

신호로 변환시켜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문자 형태로 변환한다.

다만 음성 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개인 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음성 인식 기술이 사용자의 목소리를 수집하기에 이를 누군가가 해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지문처럼 각각의 목소리도 개인의 고유한 특성이기에 개인 정보 보호가 필요하다. 송 교수는 "사람마다 모두 다른 특성을 가진 고유한 음성을 보호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인 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On-Device AI 음성인식기(이하 온 디바이스 AI)'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온 디바이스 AI는 클라우드 서버**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AI 기술을 말한다. 기존의 음성 인식 기술은 클라우드 서버를 거쳐 음성을 저장하고, 저장된 음성을 인식한다. 이는 저장된 음성을 해킹하거나 조작해 음성을 활용한 보안 장치, 화자 인식 시스템 등에 악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반면 온 디바이스 AI를 활용하면 클라우드 서버를 거치지 않아 음성이 저장되지 않고, 곧바로 음성을 문자 형태로 전환해 개인 정보 유출 문제 가능성이 줄어든다. 김 연구원은 "온 디바이스 AI는 개인 정보 유출 우려가 존재하는 기존의 음성 인식 기술과 다르게 사용자의 음성은 저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음성 인식 기술에 관한 연구가 확대돼야 한다고 말한다. AI가 등장한 이후, 음성 인식 기술 연구보다 음성 명령을 통해 정보 검색, 일상 대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연구가 주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AI도 음성 인식 기술을 활용하고 있기에, 음성 인식에 관한 연구는 필수적이다. 송 교수는 "AI 기술이 등장함에 따라 음성 인식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존재하지만, 음성 인식의 중요성과 응용 범위는 점점 커지고 있기에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파동 : 한 지점에서 발생한 진동이 사방으로 퍼져 나가는 현상

**주파수 : 1초 동안의 진동 및 파동의 횟수

***클라우드 서버 : 정보를 처리하거나 데이터를 제공하는 인터넷 기반의 가상공간

권순연 기자 tndusk03@gmail.com

맛있는 사이언스

잠 깨워주는 카페인, 많이 먹으면 독이다

계강을 맞이한 지 한 달, 어느덧 과제와 중간고사 대비에 집중해야 할 시기가 다가온다. 공부할 하다가 피곤하고 졸린 느낌이 들 때면 많은 이들이 커피, 에너지 드링크 등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를 찾는다. 인간은 언제부터 졸릴 때 카페인을 찾았는지 작았을까? 카페인이 우리 몸 속에서 어떤 작용을 일으키기에 각성 효과를 갖는 것일까? 카페인의 기원과 체내 대사과정을 파악하고 과도한 카페인 섭취로 인해 카페인 중독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카페인을 섭취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카페인 음료 중 가장 많이 섭취하는 커피가 인간에게 처음 발견된 것은 오래 전이다. 커피는 7세기경 에티오피아의 양치기소년이 자신이 기르던 염소들이 커피 열매를 따먹고 흥분하는 것을 보고 처음 먹어본 것에서 기원했다. 이후 에티오피아에서 커피 열매를 끊어서 죽이나 약으로 먹다가 에티오피아가 아라비아를 침공하면서 아라비아로 커피가 전파됐다. 16

세기경 네덜란드의 한 상인이 인도에서 커피를 유럽으로 밀반출해 유럽으로도 커피가 전해졌다. 우리나라에는 1895년 을미사변 당시 러시아 공사관에 피신해 있던 고종황제가 처음 커피를 마시고 궁중으로 들어왔다. 이후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미군부대에서 원두커피와 인스턴트 커피가 대량 공급되면서 대중들이 즐기는 음료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카페인이 몸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우선 아데노신과 아데노신 수용체의 역할에 대해 알아야 한다. 아데노신의 역할은 ▲졸음 유발 ▲혈관 확장 ▲소변량 조절 등이 있다. 인체가 많은 활동으로 인해 피로가 쌓이면 뇌에서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을 생성하고, 아데노신은 신경전달물질인 아데노신 수용체와 결합해 졸음을 유발하는 등 신체 활동을 억제한다. 아데노신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고 몸을 긴장 상태에서부터 완화시킨다. 또한 아데노신은 소변

을 만드는 세로토닌과 신장으로 들어오는 동맥 혈관인 수입세동맥 사이에서 소변량을 조절하는 역할도 한다. 이윤희(파워스포트연구소) 대표는 "아데노신은 수면을 촉진시키고 각성을 억제하며, 혈관 확장을 통해 다양한 기관으로의 혈류를 조절한다"고 말했다.

카페인과 아데노신은 화학 구조가 비슷해 아데노신 수용체는 카페인과 아데노신을 구분하지 못한다. 카페인 음료를 섭취하면 카페인이 몸 속에 들어와 아데노신 대신 아데노신 수용체와 결합해 졸음 유발을 방지할 수 있다. 카페인은 아데노신의 작용과 반대로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높인다. 이 과정에서 몸이 긴장 상태가 되면서 카페인을 섭취하면 나타나는 ▲각성 촉진 ▲주의력 상승 ▲피로 해소 등의 효과가 나타난다. 또한 수입세동맥을 수축시켜 신장에서 여과되는 물질의 양을 조절하던 아데노신의 작용을 방해해 소변량도 증가한다. 김승대(위덕대학교 보건

관리학과) 교수는 "카페인은 아데노신 수용체와 대신 결합한 후 아데노신의 작용을 방해해 각성 작용이 나타나 피곤함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양의 카페인 음료를 복용해도 각성을 느끼는 정도는 상이하다. 그 이유는 개개인이 가진 카페인 분해 효소량이 다르기 때문이다. 카페인 분해 효소의 작용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15번 염색체 속에 있다. 해당 염색체 속 유전자 배열의 차이에 따라 같은 양의 카페인 음료를 섭취해도 다른 효과가 나타난다. 김 교수는 "카페인 분해 과정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형태에 따라 개인차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카페인 중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카페인은 뇌의 도파민을 자극한다. 도파민은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으로 성취나 쾌락, 운동능력과 관련한 신경전달물질이다. 카페인이 도파민을 자극하면 몸이 각성 상

태가 되고, 몇 시간 후 도파민이 감소되면 다시 도파민을 분비시키기 위해 뇌에서 도파민 분비 촉진물질인 카페인을 떠올리게 된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카페인 중독이 나타난다. 김 교수는 "카페인 섭취로 인해 도파민을 자극해 쾌락을 찾게 되면서 카페인 중독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카페인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카페인 섭취량을 서서히 줄여나가는 방법이 거론된다. 카페인 중독으로 인한 급단중상으로는 ▲두통 ▲구역감 ▲불안 ▲신경과민 ▲우울증 ▲혈압상승 등이 있다. 이 대표는 "카페인 음료를의 섭취 횟수를 줄이거나 디카페인 커피, 허브차 등 카페인 함량이 적은 음료를 섭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신경전달물질 : 뇌를 포함한 모든 신경계에서 신호를 전달하기 위해 분비하는 물질

김유성 기자 meteor11@hansung.ac.kr

참사의 무게, 기억과 진실의 중요성



세월호 참사 10주기가 다가오고 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 가라앉은 이후 수많은 이들이 슬픔을 겪어야 했고, 우리 사회가 입은 상처를 회복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소요해야 했다.

참사 발생 이후 유가족을 포함한 관련자들은 그들 자신의 슬픔을 어루만지는 일보다,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우리 사회와 시민들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끊임없이 생각하는 데에 집중했다. 기록물 보존, 진상규명 촉구와 같은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더불어 참사의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하는 초기 대응의 중요성 강조 등 각자 다른 방식으로 노력해 왔다.

이처럼 또 다른 사회적 참사를 막기 위해 부단히 힘쓰고 있는 세월호 참사 관련자 세 사람을 본지가 만났다. 세 사람은 각자의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었지만, 비극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만큼은 일치했다. 안전한 대한민국,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 이들에게 직접 들어봤다.

황서연 기자 hsy040623@gmail.com

기억의 연장, 우리의 이야기

양옥자(55) 씨는 단원고등학교 2학년 7반 故 허재강 군의 어머니이자 '416기억저장소'의 사무국장이다. 세월호 참사로 아들을 잃은 이후, 참사가 시민들에게서 잊혀지지 않도록 여러 활동을 이어왔다. 단원고 학생 모두가 시민들에게 기억되기를 바라는 그는 지난 2016년부터 416기억저장소에서 일하고 있다.

Q. 416기억저장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모르는 이들도 많을 듯하다.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양옥자(이하 양) :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416기억저장소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모든 기록물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직후 기록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일부 학자와 시민들이 참사와 관련한 기록물을 수집하면서 시작됐다.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의 교실을 복원해 놓은 '416기억교실'을 경기도교육청 산하 416민주시민교육원과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기도 하다.

Q. 아이들이 잊혀지지 않도록 하는 활동은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 그중에서도 416기억저장소를 운영하는 일을 맡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양 : 세월호 참사에 대한 기록물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 세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로 세월호 참사를 기억할 수 있으려면 기록물의 보존은 필수적이다. 그래서 세월호가 인양된 이후에는 발견된 유품을 세척하고, 보존을 위한 처리를 진행하는 등의 일도 했다. 기록물 보존을 통해 기억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아직 명확히 이뤄지지 못한 진상규명으로도 이어지고, 우리가 더욱 안전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Q. 단순히 기록물을 보존하는 것 외에도, 시민들의 기억을 위해 416기억저장소가 진행하고 있는 일이 있는가?

양 : '기억과 약속의 길', '민주시민 교육프로그램'과 같은 활동을 진행한다. 기억과 약속의 길은 416기억저장소에서 일하고 있는 유가족과 416기억교실에서부터 '생명안전공원'까지 노란 우산을 쓰고 걸어 가며 참사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활동이다. 지나가던 행인들에게 세월호 참사를 다시 한 번 알리고 가는 길이라는 생각이 든다. 민주시민 교육프로그램 또한 참사에 대해 기억하는 활동인데, 학생들 각각의 생애를 담은 약전(略傳)*을 읽는 시간도 포함돼 있다. 그래서 참여자가 여러 학생들을 깊이 있게 기억할 수 있게끔 한다.

Q. 416기억저장소는 정부의 지원 없이 후원금으로만 운영되고 있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한 위기 속에서도 운영 지속을 위해 노력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다.

양 : 예전보다 후원금이 줄어 재정 규모 또한 줄고 있다. 큐레이터 없이 운영하는 것도 그 일환이다. 유가족인 학부모들이 수시로 방문해 관리함과 더불어, 416기억교실의 해설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Q.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

양 : 학생들이 잊혀지지 않게 노력할 수 있는 날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것 외에는 계획이 없다. 어디에 소속돼 있던 학생들을 위해서 일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416기억저장소에서 일하게 된 것이기도 하다. 앞으로도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약전(略傳): 줄여서 간략하게 쓴 전기



사진: 김유성 기자

▲양옥자 사무국장

국가, 그 의무를 다하려면

'세월호 일반인 유가족협의회(이하 일반인 유가족협의회)' 위원장인 전태호(47) 씨는 세월호 참사로 아버지를 잃었다. 일반인 유가족협의회는 단원과 소속이 아니었던 희생자 유가족들이 함께 추모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해 만든 협의체다. 지난 10년간 그는 참사의 원인은 무엇인지, 누구에게 책임소재가 있는지 명확히 밝히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거짓 없는 진상규명이 희생자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Q. 단원과 소속이 아닌 희생자의 유가족을 위한 협의체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전태호(이하 전) : 단원과 소속 희생자의 수가 일반인 희생자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그러다 보니 소수인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지원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과 단원과 소속 희생자를 위한 추모관이 별개로 운영되는 것도, 교육부가 단원과 소속 희생자를 위한 추모관을 따로 조성한다고 통보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고자 정치권과 많은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단원과 소속 희생자의 유가족과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이 함께 어우러지며 활동하고,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많이 노력했다.

Q. 세월호 참사에 관한 진상규명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존재한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참사의 원인과 진실은 무엇인가?

전 : 침몰 원인을 과학적인 근거에 입각해, 냉철히 분석하지 않았다. 당시 세월호는 고박* 상태로 좋지 않았고, 과적을 했던 사실도 존재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배의 무게중심이 정확히 어느 쪽으로 기울어진 것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배의 무게중심이 간 방향을 알아야 어느 각도에서 배에 충격이 가해졌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에, 침몰 원인을 파악하려면 무게중심의 방향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 추측성 근거로 접근하기보다는 과학적 근거에 맞춰 원인을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Q. 진상규명에 이어 참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 찾고 처벌하는 과정이 필요한 이유가 궁금하다.

전 :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국가가 의무를 다하지 못해 희생자가 발생했기에, 정부 조직에서 책임 소재를 찾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참사 당시 현장에서 지휘하던 말단 지휘관만이 처벌 대상이었다는 것은 의문이다. 참사 수습, 대응을 하는 데 있어 지휘·통제권을 가지고 있던 상급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정당하다. 희생자와 그 유가족들의 억울함을 풀려면 누구의 잘못인지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우리 사회가 희생자를 온전히 추모할 수 있게 된다.

Q. 세월호 참사에 대한 기억과 진상규명을 위해 어떤 노력을 이어갈 예정인가?

전 : 세월호 참사가 사회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제 역할을 적극적으로 다하지 않았던, 나쁜 선례가 되지 않아야 한다. 끝까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시민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책임자의 처벌을 촉구하는 것 또한 그 일환이다.

*고박: 화물을 배에 고정하여 묶음



사진: 김유성 기자

▲전태호 위원장

의로운 이들이 있기에

김상우(51) 씨는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자 수색 작업에 투입됐던 민간 잠수사이자, '416민간잠수사회' 사무국장이다. 잠수사는 수중 공사 등이 필요한 상황에서 물 속으로 들어가 용접, 해저 케이블 부설 등의 일을 하는 직업이다. 416민간잠수사회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수습했던 민간 잠수사들이 트라우마나 직업병 등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결성한 모임이다. 세월호가 가라앉은 진도 앞바다로 들어가 희생자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노력했던 그는 함께 일했던 민간 잠수사들이 일상을 회복하려면 치료·상담 지원 등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알리는 데에 주력했다.

Q.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직후인 2014년 4월 19일부터 민간 잠수사가 구조 및 수색 작업에 투입됐다. 구조 및 수색 작업에 참여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가?

김상우(이하 김) : 구조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수중공사회사는 우리나라에 한 곳 뿐이다. 그러나 수중공사회사는 수중공사를 하지 않을 때는 잠수사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데다, 해양경찰에는 투입 가능한 잠수사가 없었다. 이에 천안함 피격사건 때 구조 작업에 참여했던 민간잠수사를 투입하게 된 것이다.

Q. 세월호 내부를 수색하던 중 위에서 떨어지는 짐에 머리를 맞아 부상을 입었다고 알고 있다. 이 외에도 다른 질병을 앓고 있는지, 현재 건강상태가 어떤지 궁금하다.

김 : 세월호가 좌현*으로 넘어졌다. 한 층에 복도가 왼쪽과 오른쪽 두 개가 있었으며 양 옆으로 객실이 있었다. 넘어진 세월호에서는 위로 층이 4개 있는 셈이었다. 수색하러 위쪽 문을 열자 위에 있던 짐들이 확 떨어져 머리와 목에 맞았다. 때문에 디스크가 발생해 급하게 수술을 받았고 그 이후 트라우마로 인해 꾸준히 병원을 다니고 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잠수사들도 수색 도중 입은 어깨 인대 파열, 뼈가 썩는 골괴사증, 잠수병** 등으로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

Q. 참사 이후 정부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았는가?

김 : 국가동원령에 의해 정부로부터 받은 일당과 『수난구조법』에 의거한 치료 지원금이 있다. 일당은 구조 작업 이후 국가동원령에 의한 계약서 작성이 이뤄졌고 그에 맞는 일당이 지급됐다. 『수난구조법』에 따르면 구조 작업 중 부상을 입으면 치료비를 지원해주지만,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가 좁아 관련 치료가 중단되기 일쑤였다. 지원을 받으려면 의사 소견서에 해당 질병이 세월호 참사로 인해 발생한 것임이 쓰여 있어야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담당 의사가 바뀌는 과정 등을 거치면서 그러한 조건도 충족하기 어려웠다.

Q. 국가적 재난 상황 발생 시 자발적으로 나서는 이들이 많아지기 위해서는 정부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김 :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필요한 인력을 활용하고, 그에 걸맞은 보상이나 치료 환경을 제공해주지 않는다면 먼저 나서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될 것이다. 재난이나 사고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기에, 먼저 나서서 도와준 이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서로 도우려는 의로운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한다.

*좌현: 배의 뒷부분에서 뱃머리를 바라볼 때, 배의 왼쪽 부분

**잠수병: 잠수 시 급격한 압력 저하로 혈관 내 생긴 공기방울이 혈관을 막는 질환



사진: 김유성 기자

▲김상우 사무국장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사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삼 학 송 ·

청년 표심 잡는 첫 단추는 '정치 효능감'

새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날이 2주도 채 남지 않았다. 이번 선거를 통해 구성 될 제22대 국회의 청년 대표성은 낮은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만 19-39세의 나이를 청년이라고 볼 때, 거대 양당의 지역구 후보 중 청년은 단 20명뿐이기 때문이다. 제21대 국회 또한 297명의 국회의원 중 단 7명만이 청년층에 해당한다. 청년이 정치에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청년 정치인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성 정치권은 청년 정치인을 '소모품' 다루듯 해 온 데다, 계속해서 청년 정치인을 육성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데에는 미온적 태도를 보여 왔다. 국민에게 쇠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 청년 정치인을 전면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그들이 조금이라도 기성 정치권이 추구하는 방향에 어긋나는 행보를 보이면 정당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했다. 그마저도 주목도를 갖춘 소수의 청년 정치인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일 뿐이다.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한 청년도 능력과 의지를 갖췄다면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제도 등은 계속해서 부재해 왔다.

아 이러니한 사실은 기성 정치권이 이처럼 청년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고 있으면서도, 청년의 '표'는 아쉬워한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많은 후보자가 대학교에 직접 방문해 유세를 진행하기도, 청년의 눈에 들기 위해 스포츠를 제작해 SNS에 올리기도 한다. 무엇보다 각 정당의 지도부는 연일 '청년을 위한'이라는 수식을 붙여 정책과 공약을 발표한다.

정상혁 편집국장

하지만 작금의 청년들은 그러한 정책과 공약이 진정 우리 세대를 위한 것이 맞는지 고개를 갸웃거린다. '천원의 아침밥'이나 '전국에 대학 기숙사 5만 호 공급'처럼 시혜적 차원의 정책, 질보다 양으로 승부를 보려는 공약만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정책들은 지금 청년층이 겪고 있는 물가, 취업, 주거 등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답이 될 수 없다.

청년 없이 청년을 위한 정책을 만들려고 시도했으니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정치권이 청년층의 요구에 정확히 부응하는 정책을 내놓을 수 없다면, 당사자인 청년이 정치에 참여해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며 삶을 살아온 정치인이 정치를 통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때, 정치에 대한 '효능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러한 효능감을 느껴야 청년들은 비로소 어떤 후보를 뽑을지 고민하기 시작할 테다. 기성 정치권이 청년의 '정치 진입장벽'을 낮춰야 하는 이유다.

이처럼 청년들의 표심을 사로잡는 방법은 멀리 있지 않으며, 기성 정치권도 이를 이미 알고 있을 수 있다. 청년정치 학교 개설, 청년 공천 할당제 등 청년 정치인을 육성하기 위한 좋은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미 논의된 바가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논의를 넘어 실행에 옮길 때다. 어떤 방안이든 적극적으로 고민하기를 바란다. 우리 세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우리 세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청년에게도 당연한 이야기 가 되는 날을 기다리겠다.

■ 의화정

우리 함께!

우리는 AI 시대에 살고 있다. 2022년 11월에 OpenAI가 ChatGPT 버전 3을 공개하면서 AI가 우리의 삶과 함께하게 됐다. ChatGPT 이전에 AI라고 하면 딥러닝 신경망을 의미했다. 신경망은 인간의 뇌 구조와 학습 방법을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구현한 것으로 초기에는 매우 간단한 구조였으며 점점 발전하며 신경망을 구성하는 뉴런과 뉴런 간의 연결이 많아졌다. 간단한 문제는 적은 개수의 뉴런과 뉴런들의 연결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지만 보다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뉴런과 뉴런 간의 연결이 많아져야 했기 때문이다.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해 엄청난 개 많은 뉴런과 뉴런 간의 연결이 필요한데, 컴퓨터의 성능이 강화되고 많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돼 딥러닝 신경망은 이제 사람의 지적, 인지기능을 모방할 수 있게 됐으며, 사람이 하는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딥러닝 신경망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많이 모여 함께 일하면 어떠한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닐까. 학생들은 새 학기를 맞이해 더 나은 자신을 개발하기 위한 각오를 다진다. 한 학기 동안 공부하면서 자신의 역량 증진, 그 결과로 받는 성적을 통해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예전에는 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학생보다 잘해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같이 공부하

고 성장하는 것이 자신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시대다. 같이 지식을 모으고 서로 가르치는 행위를 통해 배우면서 각 개인의 능력은 훨씬 높은 수준에 이를 수 있다. 가르친 사람은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향상되고 해당 분야에 대한 태도도 긍정적으로 바뀐다는 '교수 효과'에 대한 연구가 이를 증명한다. 함께 한다는 것은 개인 속에 감춰진 잠재력을 더 이끌어 낼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다. 컴퓨터공학 분야에서도 소프트웨어 개발은 팀을 이뤄 진행하는 것이 정석이고 모든 코드를 팀에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공개한 코드를 활용한다. 함께 힘을 합쳐서 결과를 만들어 내는 한 예다.

'집단지성'의 시대다. 모르는 것, 궁금한 것들에 대해 질문하면 이 세상의 누군가가 답을 해준다. 같이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시대다. 집단지성에 대해 한 가지 덧붙이자면, 집단지성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지적 기량보다 친화적 기량이 더 큰 성과를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수한 개별 구성원들의 집단보다 서로 친하게 지내며 협력하는 구성원들이 있는 집단에서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우리 함께 모여 친하게 지내며 보다 많은 것을 얻고 숨겨진 나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면 어떨까? 이제 우리 함께 공부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보자. 우리 함께 성장해 보자!

김성동(컴퓨터공학부) 교수



피해자 '처벌'법 아닌 '보호'법 필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지난달 22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됐다.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는 '성매매피해자'임을 당사자가 직접 입증하지 못하면 성매매행위자로 간주돼 처벌 대상이 되는 현행 성매매처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성매매피해 발생 시 처벌의 우려로 신고를 꺼리게 되고, 이 같은 취약함을 이용해 성매매알선자가 늘어나는 상황을 초래한다.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성매매피해자가 법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국회는 시급히 성매매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

황서연 기자 hsy040623@gmail.com

■ 기자수첩

그 누구도 상상한 적 없던 '의사 없는 병원'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 2월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전공의와 의과대학 교수진의 집단 사직까지 이어졌기 때문이다. 의사들은 의과대학의 교육환경을 정비하지 않은 채 정원부터 늘린다면 교육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를 귀담아듣지 않고 정원 증원을 위한 행정적 절차를 이어가고 있다.

증가된 정원은 커녕 현재 정원에서도 원활한 의학 교육을 이어갈 수 있는 교육환경을 갖추지 못한 의과대학도 적지 않게 존재한다.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34개 의과대학 중 기초의학* 교수가 25명 미만인 의과대학은 9곳으로, 그 중에는 수도권 지역의 의과대학도 포함돼 있었

현실과는 동떨어진 처방전

다. 의과대학의 교육수준을 평가하는 한국 의학교육평가원은 기초의학 분야의 교수가 25명 이상이어야 원활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는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모든 의과대학이 인적·물적 자원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정원부터 늘린다면, 의과대학 교육의 질 저하와 그로 인한 의료 서비스 자체의 질적 후퇴는 당연한 결과로 이어진다.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추진한 정책이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누릴 기회를 앗아가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특히 교육 여건이 열악한 비수도권 의과대학의 교육여건을 개선하지 않은 채 정원만 늘린다면, 의과대학 교육과 의료 서비스에 대한 지역 간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비수도권에도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취지가 퇴색되는 차원을 넘어, 정부의 의료 서비스 양극

화를 부추기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모든 의과대학이 양질의 교육 시스템을 갖춘 수 있도록, 특히 어려움을 겪는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지원책을 먼저 마련한 후 정원을 늘려야 한다. 의학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어떤 국민도 의료진을 완전히 신뢰할 수 없다. 의료진 또한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되는 곳에서 생명을 살린다는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을 테다.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이 온전히 효과를 보려면 의과대학에 어떤 지원이 선행되어야 할지 고민하고, 정책으로서 실행에 옮기기를 바란다.

*기초의학 : 의학의 기초가 되는 학문으로 인체기능부터 바이러스, 질병 치료 등을 연구하는 의학

황서연 기자 hsy040623@gmail.com

■ 낙산에 올라

나는 한때 자존감에 대해 깊은 고민을 했던 시기가 있었다. 그때는 스스로 자존감이 낮다고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지 궁리했었다. 작년 11월 방송된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 108회를 우연히 보게 됐다. 의외인으로 등장한 유튜브 크리에이터 '엔조이 커피'의 손민수는 시도 때도 없이 느끼는 불안감을 호소하며 눈물을 흘렸는데 그 장면이 인상 깊었다. 함께 출연한 그의 연인인 임라라는 이에 "민수가 자존감이 낮은 편이다. 민수한테 잘한 걸 칭찬하면 부정한다. 불안감을 느낄 때면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민수의 고단함이 꼭 단 한 문에서 느껴진다"고 말했다. 그런 모습에서 한 때 낮은 자존감이 큰 고민이자 걱정거리였던 내 모습이 떠올랐다. 하지만 '자존감 올리기'가 비단 나만의 고민이 아닌 듯하다. 서점에 가면 자존감에 관한 도서들이 수도

'자존감 올리기'에 관한 고찰

룩하고, 유튜브를 보면 자존감에 관해 말하는 영상들이 수없이 많다.

나는 최근까지 자존감의 정확한 정의를 모르고 있었다. '자존감 올리기'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존감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자존감과 자주 혼동하는 개념은 자신감과 자존심이다. 자존감이란 자아 존중감과 같은 용어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존중하는 마음'이다. 자신감이란 자기신뢰감을 뜻하며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믿음'이고, 자존심은 타자존중감과 같은 말로 '타인에게 존중받고자 하는 마음'이다. 우리는 이제 자존감의 정확한 정의를 알게 됐다. 다음으로는 있는 그대로의 나에게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자신에 대해 잘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A4 용지 한 장에 앞뒤로 나의 장점과 단점을 천천히 적어 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고, 싫

어하는 것은 무엇인지도 함께 적어 보는 것이다. 나에게 대해 잘 알고 있는 것만큼 자신을 사랑하기 좋은 방법이 없다. 나에게 대해 알아봤다면 타인의 반응에 덜 민감해질 수 있다. 누구보다 자신을 잘 아는 건 바로 '나'라는 믿음에서 오는 안정감이 타인의 무조건적 비판을 가볍게 털어낼 수 있게 만들고, 이미 알고 있는 자신의 단점이라면 거부감 없이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존감 올리기에 너무 급급하지 않기를 바란다. 자존감은 눈에 보이지 않기에 너무 모호하고, 사람마다 정의 내리는 것도 다양하다. 이런저런 말들에 흔들리지 않고, 천천히 그리고 오랫동안 나에게 애정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마다 자신만의 세상이 있고, 나만 아는 내 세상에서 오래도록 사랑을 품는 것, 그거면 충분하다.

채지우(사회과학 3)

기자사령

임

수습기자 이승희(사회과학 2) 심민섭(IT 1)
이예지(사회과학 1) 박석희(상상력 1)
김태형(IT 1) 김지윤(문론 2)

〈한성대신문〉은 교수님의 동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면에 실을 동정이 있으면 한성대신문사(내선 4186)로 문의바랍니다.



한성대신문사 02876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Tel 02)760-4186

발행인 이창원 편집인김주환 김남용 편집국장 정상혁 디자인 (주)나눔커뮤니케이션

제18회 사진공모전

찰나의 순간이 영원으로 남길

모집기간

3월 25일(월) ~ 4월 26일(금)

참가대상

본교 학부 재학생

주제

자유(주제에 제약 없음)

제출사항

응모작, 참가신청서
(교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제출방법

- ① 온라인 제출 : hansungnews@gmail.com로 제출
*응모작 규격 : 장축 4000px 이상의 jpg 파일
- ② 오프라인 제출 : 한성대신문사
(중문 우촌관 앞 IBK기업은행 건물 2층)에 직접 제출
*응모작 규격 : 8X10in(20.3X25.4cm)
인화 사진

수상작 발표

한성대신문 제601호 (6월 10일 발행)

시상내역

최우수작(1명) : 상장 및 상금 40만 원
佳作(1명) : 상장 및 상금 20만 원

비교과 포인트

대회참가 10pt
당선 후 수상소감 작성 시 10pt 추가 지급

문의사항

- 한성대신문사 02)760-4186
- 카카오톡채널 @hansungnews
- 인스타그램 @hansungnews

- ※ 1인당 최대 3점 응모 가능합니다.
- ※ 참가신청서의 파일 이름은 '(제출자 이름)_제18회 사진공모전 참가신청서'로 합니다.
- ※ 작품의 파일 이름은 '(제출자 이름)_작품제목.jpg'로 합니다.
- ※ 타 사진공모전 출품작의 중복지원을 불허합니다.
- ※ 스마트폰, 필름사진, DSLR, 미러리스로 촬영한 사진 모두 규격 준수 시 응모 가능합니다.
- ※ 포토샵 등 합성과정을 거친 사진은 불허합니다.
(단, 간단한 색보정은 허용)
- ※ 제출한 응모작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 ※ 심사는 외부 심사위원이 진행합니다.
- ※ 최우수작이 없을 시佳作만 시상합니다.

